**가장 현명한 간구/ 릭 조이너**



**▒ 왕국에 이르는 지도와 신뢰 ▒**

독수리가 계속하여 내게 말했다.

"주님께서 '너희가 너희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그러나 나를 위하여 너의 목숨을

버리면 그것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왕국에 이르는 지도를 주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만이 당신을 계속하여 산의 정상까지 이르는 길에서 지켜 줄 것이며,

앞으로 있을 큰 전쟁에서 승리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당신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 줄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가고 있는 곳은 혼자 가야 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다른 쪽에서 당신을 기다리겠습니다.

당신은 다른 누구에게도 당신의 신뢰를 두셔서는 안됩니다.

당신 자신에게도 안되며 오직 주님께만 두어야 합니다."

**▒ 가장 현명한 간구 ▒**

전에 내가 알았으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경했던 한 사람이 내 앞으로 나와서

내게 말했다.

"나는 이 만남이 있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적은, 거의 극소수의 그리스도인들만이 분별의 참 은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 은사가 없이는 현재 또는 과거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진실을 정확히 분별해 내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심지어 이 은사를 가지고도 어렵습니다.

당신이 여기 와서 그리고 모든 것이 벗겨지기까지는,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왜곡된 편견을 통하여 판단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가 올 때까지 판단하지 말도록 경고를 받은 것입니다.

가장 악한 사람들 속에도 선한 동기들이 있었고

가장 선한 사람들 안에도 악한 동기들이 있었습니다.

오직 여기서만 사람들이 그들의 행위와, 동시에 그들의 동기에 따라 심판을 받습니다."

"내가 세상으로 돌아가도, 여기(백보좌 앞으로 이르는 길) 왔다 갔기 때문에 역사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게 됩니까?"

"당신은 주님께서 당신을 엄정하게 판단하시고 가차없이 고치셔서 그분을 더욱 완전히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하셨기 때문에 이곳에 왔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가장 현명한 간구 중 하나입니다.

슬기로운 자들은 자신들이 판단 받지 않기 위하여 자신을 심판합니다.

더욱 슬기로운 자들은 주님께 심판을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 스스로를 판단할 수도 없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여기 오게 됨으로써 당신은 훨씬 더 많은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그분과 함께 일하고 있을 때, 비로소 그분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만이 성령의 생각을 아십니다.

높은 소명이란 주님께서 부르신 누구도 도달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는 무엇이 당신을 생명의 길로 지켜 줄 것인지 말해 주겠습니다.

- 구세주를 사랑하고 오직 그의 영광만을 추구하십시오.

당신을 높이기 위하여 하는 모든 것은 언젠가 당신에게 가장 참혹한 수치를 안겨

줄 것입니다.

구세주를 위한 진정한 사랑을 통하여,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당신이 행하는 모든 것은 그분의 영원한 왕국의 경계를 넓혀 주고,

결국 당신 자신에게도 훨씬 더 높은 위치를 안겨 줄 것입니다.

이곳에 기록된 것을 위해 사십시오.

땅 위에 기록되는 것을 조금도 개의치 마시기 바랍니다."

**▒ 베일들을 벗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 ▒**

그때 내가 알지 못하는 한 여인이 다가왔다.

그녀의 아름다움과 우아함은 숨이 막힐 정도였으나

그렇다고 유혹적인 것은 아니었다.

"나는 세상에서 그의 아내였습니다." 그녀가 먼저 말했다.

"오직 당신이 자신의 영혼을 순수하게 지킬 때, 당신은 진실로 지속되는 영원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내 스스로 지금 너무 사악하고 부패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특히 그녀의 순수함에 압도되었다.

그녀가 너무도 순수하였기 때문에 그녀를 경배하고 싶은 강렬한 열망을 느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녀가 힘주어 말했다.

"이 시간 나나 또는 다른 어떤 사람들을 경배하고 싶은 당신의 열망은

당신 스스로를 외면하고, 당신이 되고 싶었으나 이루지 못한 것을 섬김으로써

당신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한 시도일 뿐입니다.

나는 주님께로 돌아섰기 때문에 지금 순수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영혼 속에 있는 부패를 볼 필요가 있지만,

당신 자신 위에 머물러 있거나, 죽음으로써 당신을 정당화하려고 애써서는 안되며

그분께로 돌아서야만 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순수한 사랑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상처를 입거나 불쾌해지기는 불가능하였다.

그녀는 내가 이해한 것을 보자 계속해 말했다.

"당신 자신보다 더 순수한 사람들을 경배한다고 결코 당신이 순수해질 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그들을 초월하여 그들을 순수하게 만드신 그분, 그리고 오직 홀로 죄가 없으신

그분을 찾아가야 합니다."

단지 우리의 대화를 더 연장하고 싶은 마음에서 나는 생각나는 다음 질문을 하였다.

"이곳에 당신이 남편과 함께 있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까?"

"당신들이 땅 위에서 가지고 있던 모든 인간 관계들은 여기서도 계속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심판으로, 또한 바로 우리가 이제는 영인 것처럼

영적 관계가 됨으로써 모두 정화됩니다.

당신이 용서를 많이 받을수록 사랑 또한 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용서한 후 우리는 서로를 더욱 사랑하였습니다.

이제 우리의 사랑은 훨씬 더한 깊이와 풍요로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원의 공동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용서하기 어려울수록 그만큼 당신은 진정한 사랑에서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용서는 필수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걸려서 넘어지거나 당신을 위해 선택된 길에서 여러모로

벗어나게 됩니다."

이 순간 나는 그토록 고통스럽게 나 자신의 사악함과 대면케 만든 이 여인이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들 중 가장 매력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했다.

그것은 이성적인 매력은 아니었으나 나는 그저 그녀의 곁을 떠나고 싶지 않았다.

내 생각을 알아차리고, 그녀는 이제 간다는 표시로 한 걸음 뒤로 물러나면서

나에게 마지막으로 통찰력 있는 말을 남겼다.

"순수한 사랑에서 나온 순수한 진리는 언제나 끄는 힘이 있습니다.

당신은 여기서 느낀 고통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당신의 남은 여생을 사는 동안 당신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통은 좋은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보여 줍니다.

당신이 문제를 찾을 때까지 고통을 줄이려 애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비추어 주므로 자주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이 역경은 모두 당신을 생명의 첩경에서 지켜 주기 위하여 허락된 것입니다.

또한 당신의 나에 대한 끌림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순수한 진실이 순수한 사랑과 합쳐질 때, 인간은 창조되었던 본 모습의 인간이

될 수 있으며,  또한 불안감에 의하여 서로 지배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로 인하여 사랑이 최저 수준으로 타락해 버린 정욕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으로 남자들은 진정한 남자들이 되고, 여자들은 창조의 본 모습대로

여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사랑이 두려움을 대신하였기 때문입니다.

참사랑은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것이며 정욕은 천국의 영광을 원수가 변질 시킨 것입니다."

"당신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도 이 지독한 변질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내가 간청하듯 질문했다.

"그렇습니다. 만일 당신의 생각이 진리의 성령님으로부터 새로워지면,

당신은 인간 관계를 다른 사람들로부터 무엇인가를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기회로 보게 될 것입니다.

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 가장 큰 성취감을 줍니다."

이 말을 끝으로 그녀는 영광스러운 성도들의 열로 되돌아 갔다.

나는 다시 보죄를 향하여 바라보았다.

그리고 영광이 이전 보다 더 더욱 아름다워 보였기 때문에 깜짝 놀랐다.

가까이 서 있던 또 다른 남자가 설명했다.

"매번의 만남을 통하여 베일이 하나씩 벗겨지기 때문에 당신이 그분을 더욱 더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의 영광을 그저 보는 것만이 아니라 벗은 얼굴로 보게 될 때 당신은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참 심판으로 나아오는 모든 사람들은

이와 같은 통로를 지나면서 그들이 아직도 쓰고 있는 베일들,

바로 그분에 대한 그들의 시각을 왜곡시키는 그 베일들이 있을 경우

이들을 벗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다음은 예전에 성령께 받은 메시지 인데

오늘 릭조이너의 글을 읽고 확증이 되었습니다.

" 죄를 지었을 때도 너의 죄를 자백하고 서둘러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의 의가 되는 것이지, 너의 의가 너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 죄책감에 빠져 자신에게 의가 없다고 자책하며

계속 슬픔 가운데 빠져있다면 그것도 하나의 자기 의에 대한 교만이다.

오직 나의 의를 바라보라.

나의 사랑이, 나의 희생이, 나의 헌신이, 나의 죽음이, 나의 생명이 너를 구원한다.

너 스스로 자신을 무엇인가 옳다고, 바르다고, 안다고, 뛰어나다고, 거룩하다고 하지 말라.

만약에 너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서 나오는 열매이다.

나의 '의'로서 맺은 열매 인 것이다.

너는 나에게 붙어있고 늘 나만 바라보라. 그리고 내 품에서 안식하라.

너의 힘으로 할 수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는 것을 너도 잘 알지 않느냐.

내가 하리라. 너가 하는게 아니라 내가 사랑을 하고 내가 선을 베풀리라.

내가 일하는 것을 구경하며 나를 응원하여라.

그것이 나에게 붙잡혀 있는 것이고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이다."

Tags

회개 청종 믿음 의심 내주

지혜 분별력

복수 사면 용서